

논술 모의고사 문제지

(인문계열) : 120분

모집단위		전형유형	논술우수자
수험번호		성명	

■ 일반 유의사항

1. 시험시간은 120분, 배점은 [문항 1]이 50점, [문항 2]가 50점입니다.
2. 답안을 구상할 때 문제지의 여백이나 문제지 내의 연습장을 사용하십시오.
3. 답안을 작성할 때 반드시 흑색 필기구만 사용하십시오(연필, 샤프 사용 가능, 사인펜 불가).
4. 답안을 정정할 때 원고지 사용법에 따르십시오(수정 테이프, 지우개 사용 가능, 수정액 불가).
5. 답안은 반드시 해당 문항의 답란에 작성하고, 답란 밖에는 작성하지 마시오.

※ 답안지는 절대 교체할 수 없습니다.

■ 답안 작성 유의사항

1. 제목은 쓰지 마시오.
2. 제시된 분량을 지키시오.
3. 제시문의 문장을 그대로 옮기지 마시오.
4. 각 문항에 제시된 조건을 고려하여 쓰시오.
5. 서론과 결론은 쓰지 말고 본론에 해당하는 부분만 작성하십시오.
5. 수험번호, 성명 등 신상에 관련된 사항을 답란이나 답안지의 여백에 드러내지 마시오.



논술 모의고사 (인문계열)

[논제] 대의 민주주의가 효과적으로 작동하기 위해 다수대표제(지역구 소선거구제)와 비례대표제(전국구 대선거구제) 중 어떠한 선거제도가 더 바람직한지를 토론하는 상황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문항 1] <다음> 중 하나의 주장을 택한 후, <조건>에 따라 논하시오. (600자±60자, 50점)

— < 다 음 > —

주장 1 : 다수대표제가 더 바람직하다.

주장 2 : 비례대표제가 더 바람직하다.

— < 조 건 > —

1. 제시문 (사)의 <자료 2>~<자료 5>를 모두 활용하여 자신이 택한 주장에 가장 잘 부합하는 국가를 하나 선택하고, 그 국가를 선택한 이유를 같은 자료를 활용하여 제시할 것.
2. 제시문의 문장을 그대로 옮기지 말 것.

[문항 2] 아래의 <조건>을 고려하여 [문항 1]에서 택한 자신의 주장을 정당화하고, 이에 대해 예상되는 반론을 제시한 후, 이를 재반박하시오. (1,000자±100자, 50점)

— < 조 건 > —

1. 제시문 (가)~(바) 가운데 세 개를 활용하여 자신의 주장을 정당화할 것.
2. 반론의 논거 역시 제시문 (가)~(바) 중 세 개를 활용하여 제시할 것.
3. 재반박에서는 제시문 (사)의 <자료 1>에서 자신이 선택한 국가의 특징을 분석하여 자신의 주장을 옹호할 것.
4. 제시문의 문장을 그대로 옮기지 말 것.

(가) 언어는 의사소통의 수단이기 이전에 세계를 이해하는 인식의 창이자 고유한 정체성을 부여하는 문화이기도 하다. 필리핀 민도르섬에 사는 하우누족은 450여종의 동물과 1,500여종의 식물을 구별한다. 북극에 사는 이누이트족은 얼음과 눈의 강도에 따라 수십 개의 서로 다른 단어를 사용한다. 이처럼 인간은 언어를 통해 다양한 문화, 기술, 예술, 음악 등을 창조할 수 있기에 언어는 인간이 축적해 놓은 모든 풍요로운 지혜의 원천이 된다. 기술은 다른 새로운 기술로 대체될 수 있지만 언어는 그렇지 않다. 각 언어마다 세계를 보는 자신만의 창이 있기에 모든 언어는 살아 있는 박물관이자 문화의 기념비와도 같다. 따라서 언어 다양성의 일부라도 잃어버리게 된다면, 이는 우리 모두에게 큰 손실을 안겨 준다고 할 수 있다.

언어학자들은 1970년대에 들어서야 비로소 사용자 수가 약 350명가량 되는 희사카리아나라는 언어를 발견했다. 이 언어는 아마존강 유역의 여러 소규모 언어들 중 하나이다. 희사카리아나어의 특이한 점은 이제까지 알려진 언어 중 이 언어만이 유일하게 목적어가 문장의 맨 앞에 놓인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나는 책을 읽는다”라는 문장을 “책을 읽는다 나는”과 같은 식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이 언어를 발견하지 못했다면 우리는 인간의 언어가 목적어·주어·동사의 어순을 가질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을 것이다. 이국적인 생소한 언어를 언어학자들의 연구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식물학자에게 장미와 온실 재배 토마토만을 연구하도록 한 뒤 식물의 세계에 대해 얘기해 줄 것을 기대하는 것과 같다. 언어 다양성은 인간의 의식구조를 들여다볼 수 있는 가장 유용한 시각을 제공해 준다. 그 속에는 인간이 자신의 경험을 체계화하고 분류하는 창조적인 방식이 담겨 있다. 이런 까닭으로 사용자가 얼마 되지 않는다고 소수 언어가 사라지는 것을 방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왜냐하면 우리는 서로 다른 언어의 공존을 통해 전 세계의 다양한 삶의 경험을 포섭하고 서로 다른 사회 문화에 대한 인식도 넓힐 수 있기 때문이다.

고등학교 『언어와 매체』, 『생활과 윤리』 활용

(나) 미국의 곤충학자 윌리엄 모턴 휠러(W. M. Wheeler)는 협업(協業)을 통해 거대한 집을 만들어내는 개미를 관찰하고, 개미는 개체로서는 미미하지만 군집(群集)하여서는 높은 지능체계를 형성한다고 주장하였다. 미국 잡지 <더 뉴요커>(The New Yorker)의 논설위원인 제임스 서로위키(J. Surowiecki)에 따르면 개인의 다양성과 독립성이 보장되고 적절한 통합기제가 작동되는 사회에서는, 다양한 관점을 지닌 시민의 집단지성이 그 안의 가장 우수한 집단의 판단보다 지능적이라고 말한다. 시민의 협력적 지혜를 높이 평가하는 이러한 시각은 새롭게 부각되는 현대사회의 특징을 잘 보여준다. 과거엔 대중이 일방적으로 전문가의 의견을 존중하고 미디어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평론가의 평가를 수동적으로 수용했다면, 오늘의 시민은 직접 지식을 생산하고, 일인 미디어로 주체적인 자기 발언을 하며 적극적으로 예술과 문화, 사회와 정치를 비판하고 평론한다.

모든 분야를 섭렵하기 어려울 정도로 방대한 지식의 바다에 살고 있는 현대 시대에 엘리트 지식인들의 한계는 뚜렷하다. 과거의 지식인은 다양한 분야에 폭넓은 지식을 가지고 종합적으로 사고하는 사람을 말했다. 반면 오늘날의 지식인은 한 가지 분야에 깊은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미시적 지식 생산에 집중하는 사람을 지칭하는 경향이 크다. 독일어로 ‘파흐이디어트(Fachidiot)’라는 말이 있다. 이는 ‘분야’라는 의미의 ‘파흐(Fach)’와 ‘바보’라는 의미의 ‘이디어트(idiot)’의 합성어로서 자기 분야 밖에 모르는 사람을 가리킨다. 현실 세계를 통합적인 관점으로 보지 못하는 지식인이 늘어남에 따라 보다 거시적 관점에서 세계를 보고자 하는 시민의 욕구는 커졌다. 특히 이러한 욕구는 다양한 분야와 집단의 협업을 통한 지식산업의 발전을 촉진했다. 특정 지식인이 전 분야를 포괄하기 힘든 현대의 지식 구조에서 인터넷의 연대를 통한 집단 지성은 과거의 ‘르네상스형 인간’의 자리를 대신하고 있다.

고등학교 『윤리와 사상』, 『통합사회』 활용

(다) 허쉬만(A. Hirschman)은 수요량의 변화가 가격이 아닌 상품의 질적 변화에 의해 발생할 수 있음에 주목했다. 그는 상품의 질적 하락에 대한 소비자의 대응을 이탈(exit), 항의(voice), 충성(loyalty)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했다. 이탈은 현재 구매하고 있는 상품이나 소속된 조직을 포기하고 다른 대안들을 선택하는 것을 말하고, 항의는 현재의 상품이나 조직의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것을 뜻하며, 충성은 현재의 상품이나 조직이 개선되기를 인내심을 갖고 기다리는 것을 의미한다. 이탈은 경쟁적인 시장의 존재를 전제한다. 예를 들어, 특정 기업이 만든 상품의 질에 불만을 가진 소비자가 더 이상 그 기업의 상품을 사지 않겠다고 하려면 그 상품이 교환되는 시장은 경쟁적 시장이어야 한다. 독점시장이나 생산자들 간 담합이 가능한 과점시장에서는 소비자의 이탈 자체가 불가능하다.

또한 소비자가 상품의 질적 저하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이탈 혹은 항의할 대상이 분명해야 한다. 누가 잘못했는지 모호하여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상품의 질적 저하에 대한 책임을 묻기 어렵다. 인터넷 망에 과부하가 발생하여 속도와 접근성이 떨어진 상황을 예로 들어보자. 통신업체는 자신들이 설치한 망에 콘텐츠업체가 무임승차했기 때문에 이 문제가 발생했다고 하면서 콘텐츠업체들이 망 시설 확충에 대한 비용을 일정량 부담해서 인터넷 속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편 콘텐츠업체는 소비자가 단순히 통신망에 접속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들이 제공한 콘텐츠를 즐기기 위해 통신 요금을 낸다고 하면서 통신사가 망 시설을 확충하여 속도와 접근성이 떨어지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런 상황에서 소비자는 인터넷 속도와 접근성 저하 문제의 책임 소재가 어디에 있는지 알기 어렵기 때문에 이탈하거나 항의하기 어렵다. 그래서 상품 질의 개선을 위한 소비자의 활동 영역은 그만큼 줄어든다.

고등학교 『경제』, 『정치와 법』 활용

(라) <나는 가수다>, <불후의 명곡>, 미국의 배심원제도, 금융통화위원회의 통화정책, 방사능 폐기장 선정 등은 서로 상관없이 보이는 것 같으나 공통점이 한 가지 있다. 모두 다수결 방식으로 우승자, 피고인 유무죄, 주요 정책 방향 등을 결정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다수결 원칙은 민주사회 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간의 의견 수렴과정에서 최종 해결책을 찾는 데 자주 이용된다. 일찍이 로크는 다수결은 사회계약의 전제로서 민주주의를 구성하는 기본 원칙이라고 주장하였다. 그에 의하면 공동체는 상호 동의에 기반을 둔 사회계약에 의해 구성되며, 이 공동체는 하나의 유기체로서 집단적인 의사결정을 내려야 한다. 그리고 하나의 집단적인 의사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공동체에서 상대적으로 더 큰 힘이라 할 수 있는 다수의 동의에 따라야 하며, 소수가 다수의 의견에 따르는 것은 공동체가 구성될 때 처음부터 약속된 전제이다. 이와 같이 로크는 다수결을 공동체 구성원이 따라야 할 당위적인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헬렌 랜드모어(H. Landmore) 등과 같은 현대 정치학자는 다수결의 정당성을 정치적 평등과 사회적 효용의 극대화에서 찾는다. 정치적 평등이란 모든 사람의 정치적 권리가 동등하다는 것으로, 모든 유권자가 투표에서 동등한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1인 1표의 원칙'도 이러한 정치적 평등에 기반하고 있다. 따라서 어떤 이의 권리가 다른 이보다 크다고 할 수 없기에 사람들 간의 의견은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 해결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다. 또한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 최대한 많은 사람의 선호가 대변될 수 있고, 이를 통해 사회적 효용이 극대화될 수 있다.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는 안이란 존재할 수 없기에, 최대한 많은 이를 만족시키는 안이 선정되는 것은 합리적일 뿐 아니라 사회적으로 바람직하다. 따라서 이들은 모두의 의견을 반영하려는 이상적인 의사결정 방식을 비판하며, 만장일치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최대한 많은 이의 정치적 권리가 반영되는 것이 합리적이고 바람직하다고 주장한다.

고등학교 『통합사회』, 『윤리와 사상』 활용

(마) '브렉시트(Brexit)' 국민투표에서 탈퇴 진영이 잔류 진영을 약 4% 차이로 이겼다. 이 결과를 경제학자 그레고리 맨큐(N. G. Mankiw)는 『오만과 편견(Pride and Prejudice)』 52% 대 『이성과 감성(Sense and Sensibility)』 48%라고 비유했다. 영국 여류작가 제인 오스틴(J. Austen)의 대표작 두 편의 제목으로

찬반 지지율을 해석한 것인데, 그에게는 브렉시트 찬성이 오만과 편견의 결과로 여겨졌던 것 같다. 브렉시트를 반대했던 진영에서는 국민투표가 유권자의 입장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또 국가의 운명과 관련된 브렉시트는 한 번의 국민투표로 결정할 게 아니라 선출된 '프로 정치인'들이 몇 날 며칠 토론을 하고, 의사결정 이후에도 추가로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해 함께 해결해나가야 했다고 아쉬워하기도 한다. 어떤 사람은 일반 대중이 브렉시트의 의미를 제대로 알았더라면 찬성표를 던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하고, 또 어떤 이는 EU에 대한 평가처럼 보이는 브렉시트 투표가 실은 EU에 관한 의견표시가 아니라 단지 영국 상황에 대해 항의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브렉시트에 이어 또 한 번의 충격적인 투표가 있었다. 의원 내각제인 터키에서 의회의 통제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로울 뿐만 아니라 사법부 고위 재판관들의 임명권을 가지며 심지어는 향후 10년까지도 장기집권 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은 대통령제 개헌안이 국민투표 결과 통과된 것이다. 87%의 높은 투표율을 보인 가운데 찬성 투표가 51.3%로 반대를 2.6% 포인트 앞섰다. 이번 개헌안이 통과된 데는 현 정부가 진화론 교육 취소 등 이슬람식 교육을 부활시키고,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를 늘리면서 무슬림의 절대 지지를 얻은 것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하지만 개헌 지지자들에게 개헌이 위험하다는 지적은 무의미해 보인다. '스스로 독재 속으로 걸어간다'는 손가락질 속에서도 이들에게 개헌은 국민인 자신들의 뜻을 반영할 '민주주의'다. 빈민지원과 이슬람화 정책 앞에서 약 1세기 동안 유지해 온 건국이념이었던 케말리즘(정교 분리 개혁)이 위기에 처하고, 대신 막강한 권력을 독점하는 이른바 '21세기 술탄'이 부활하게 된 것이다.

고등학교 『정치와 법』, 『세계지리』 활용

(바) 주식회사의 주요 의사결정은 주주가 보유한 지분의 크기를 기준으로 한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이루어진다. 때문에 소액주주들은 각자 출자금액에 비례하는 지배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지배주주에게 그 권리를 빼앗길 우려가 높다. 주주행동주의는 이와 같은 지배주주의 과도한 권한을 견제하기 위하여 소액주주들의 연대를 통해 기업경영에 적극 개입하려는 목적을 가진다. 일반적으로 주주행동주의는 소액주주의 권익을 보호하는 긍정적 효과가 있지만, 지나치게 강화된 소액주주의 권익이 회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지배주주의 경우 회사의 경영실패가 곧바로 자신의 피해로 이어지기 때문에 경영진에 대한 통제가 철저하며 의사결정에 신중을 기한다. 반면 소액주주들은 경영실패로 인한 피해 정도가 지배주주보다 훨씬 작고 단기차익에 관심이 높기 때문에 단기수익을 추구하는 무리한 전략을 선호하거나 기업 경쟁력을 높이는 장기 전략에는 무관심할 수 있다. 의사결정 과정에서도 소액주주들은 통일된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 경영진도 소액주주들로부터의 책임추궁과 혼란을 회피하기 위해 보수적 전략에 안주할 가능성도 있다.

최근에는 단기이익을 추구하는 일부 헤지펀드가 주주 행동주의로 포장되는 사례도 나타난다. '이리떼(wolf pack)'라 불리는 이들은 공시의무가 없는 소액지분을 서로 나누어 보유하고 있다가 어느 순간 연대하여 회사를 공격한다. 이리떼 펀드들은 주로 대주주 지분율이 낮은 기업들을 목표로 삼는데, 책임감이 부족하고 단기이익에 민감한 소액주주들이 헤지펀드에 쉽게 지분을 팔아버리기 때문이다. 헤지펀드의 공격을 받은 한 기업은 단기적으로 주가를 상승시키기 위해 연구개발 투자를 급격히 줄이고 기술연구소를 폐쇄하여 수천 명의 연구 인력을 감축하는 비용절감을 추진하기도 하였다.

고등학교 『경제』 활용

(사) 현대의 민주주의는 '대의 민주주의(representative democracy)'로, 대표를 선출하여 국정의 운영을 맡기는 정치체제이다. 이러한 대의 민주주의가 효과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대표성'과 '책임성'이 제고되어야 한다. 대표성이란 '대표가 얼마나 시민의 선호와 이익을 대변하는가'의 문제로, 정책결정 과정에서 보다 다양한 시민들의 이해관계가 반영될수록 높아진다. 책임성은 '대표가 얼마나 자신의 결정에

정치적 책임을 지는가의 문제로, 시민들이 반복된 선거의 경험을 통해 대표의 정책성과에 기반하여 투표 할수록 높아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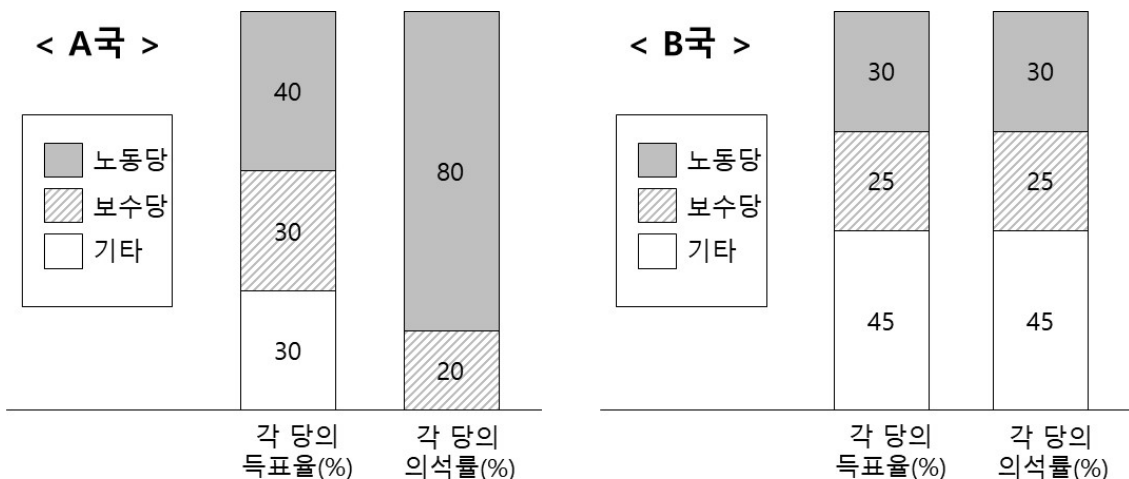
다음의 자료는 얼마 전 전국단위의 국회의원 선거를 치룬 A, B, C, D 네 국가에 대한 정보이다. <자료 1>은 각국의 민주주의 역사, 인종적 동질성, 지배적 종교, 이민자 비율, 그리고 각국이 채택하고 있는 선거제도를 정리한 표이다. 민주주의 역사는 민주화가 된 이후부터 현재까지 민주주의 체제가 지속된 기간(년)을, 인종적 동질성은 '무작위로 뽑은 두 명의 국민이 서로 다른 인종에 속할 확률'을 의미하는 '인종언어 파편화 지수(Ethnolinguistic Fractionalization Index)'를, 지배적 종교는 그 나라 국민의 70%가 신자로 있는 종교를, 이민자 비율은 전체 인구에서 해외에서 이주해 온 이민자의 비율을 통하여 측정하였다.

<자료 1> A, B, C, D 네 국가의 특징 및 선거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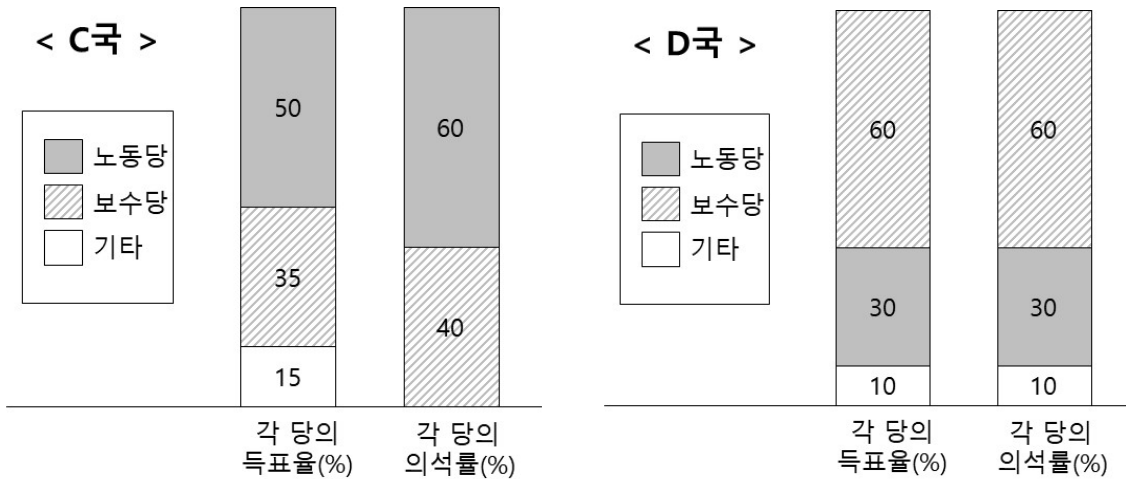
국가	민주주의 지속기간(년)	인종언어 파편화 지수	지배적 종교	이민자 비율(%)	선거제도
A	80	0.75	없음(다양)	12.8	다수대표제
B	110	0.67	없음(다양)	14.1	비례대표제
C	5	0.05	가톨릭	2.7	다수대표제
D	3	0.08	개신교	3.0	비례대표제

<자료 2>와 <자료 3>은 선거가 치러진 후 네 국가의 정치적 상황을 보여준다. <자료 2>는 네 국가의 각 정당이 선거에서 득표한 비율(득표율, %)과 의석을 차지한 비율(의석률, %)을 보여주는 그래프이다. <자료 3>은 각국 시민의 진보-보수 이념성향 분포(그래프에서 곡선, 0: 매우 진보적 ~ 10: 매우 보수적)와 국회 진입에 성공한 각 정당의 이념적 위치(그래프에서 수직선)를 보여주는 그래프이다.

<자료 2> 각국 정당의 득표율 대 의석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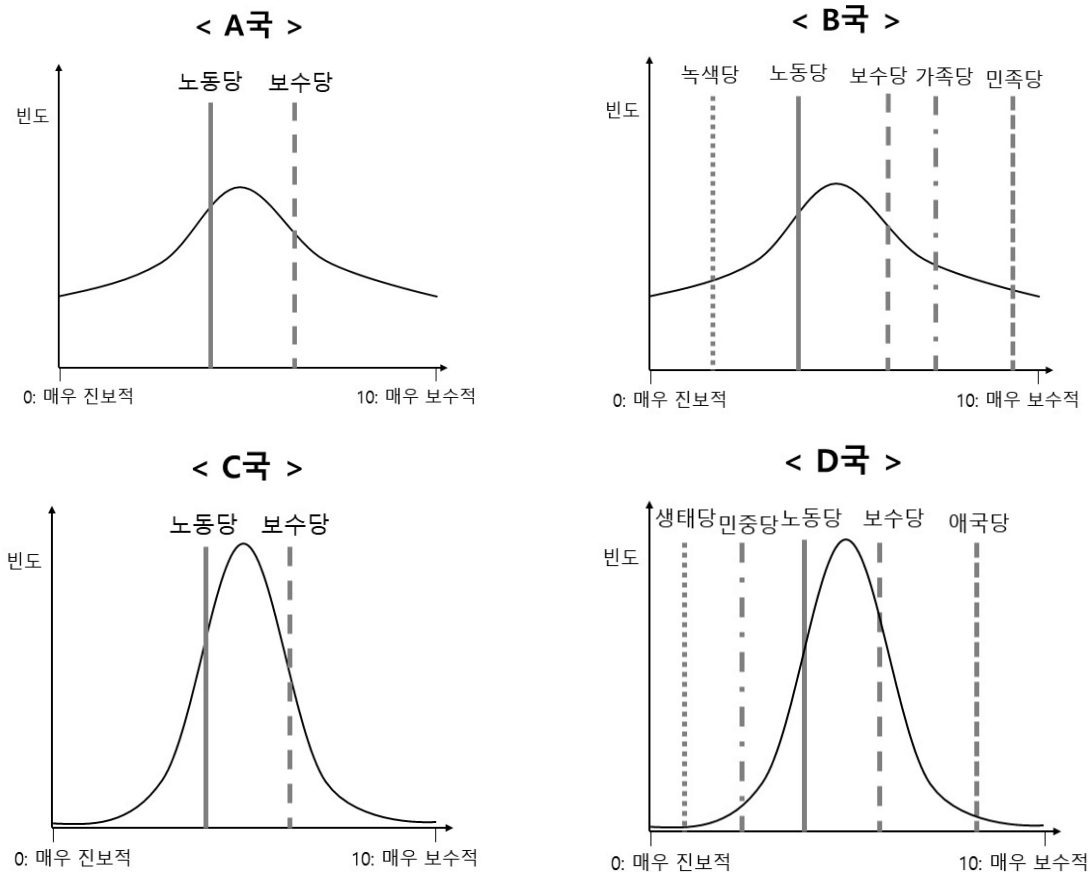


(<자료 2> 뒤 페이지에 계속)



* 각 당의 득표율은 A, C국의 경우 지역구의 투표결과를 종합하여, B, D국의 경우 전국구의 투표결과를 바탕으로 계산됨

<자료 3> 시민의 이념성향 분포와 각 정당의 이념적 위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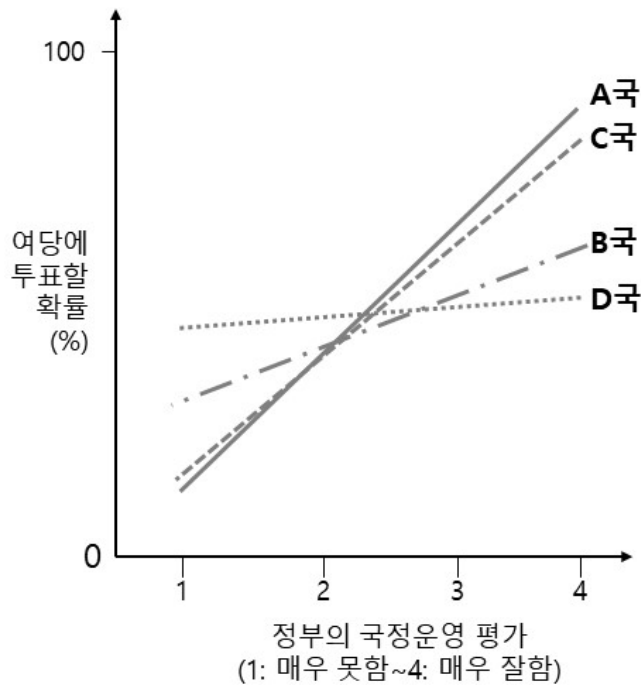
<자료 4>는 선거 직전 각국의 거시경제 상황과 선거 결과를 정리한 표이다. 선거가 치러질 당시 A, D국의 집권여당은 주로 친기업적 성향을 지닌 보수당이었고, B, C국의 집권여당은 주로 노동자의 권익에 앞장서는 노동당이였다. <자료 5>는 선거 직후 치러진 설문조사 결과, 개인 수준에서 유권자가 각자의 정부에 대한 평가(1: 매우 못함 ~ 4: 매우 좋음)를 바탕으로 투표할 확률(%)을 보여주는 그래프이다. 그래프는 유권자의 투표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기타 요인들을 통제한 회귀모형을 통해 도출되었다.

<자료 4> 선거 직전 1년간의 거시경제 상황과 선거 결과

국가	1인당 GNI 성장률 (선거 직전 해, %)	임금노동자 계층의 소득구조 변화(%)			여당	직전 선거 대비 여당의 득표율 증감(%)	여당의 재집권 여부
		여당집권 말 여당집권 초	빈곤하지 않음	빈곤함			
A국	-5	빈곤하지 않음	78.8	21.2	보수당	-20	재집권 실패
		빈곤함	1.5	98.5			
B국	4	빈곤하지 않음	96.9	3.1	노동당	-5	재집권 성공
		빈곤함	25.4	74.6			
C국	12	빈곤하지 않음	95.4	4.6	노동당	10	재집권 성공
		빈곤함	18.1	81.9			
D국	-3	빈곤하지 않음	61.4	38.6	보수당	15	재집권 성공
		빈곤함	1.7	98.3			

* 소득구조에서 '빈곤함'은 소득이 해당 국가 중위소득의 50% 미만을, '빈곤하지 않음'은 그 나머지를 의미함.
 ** 임금노동자가 전체 유권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네 나라 모두에서 선거결과를 좌우할 만큼 다수를 차지함.
 *** 네 나라 모두에서 경제가 해당 선거의 가장 중요한 쟁점이었음.

<자료 5> 정부 평가에 따른 여당 투표확률



논술 모의고사 (인문계열)

논술 모의고사 (인문계열)

																			40
																			80
																			120
																			160
																			200
																			240
																			280
																			320
																			360
																			400
																			440
																			480
																			520
																			560
																			600

